

두경부암 적출술 후 구강내 재건에 있어 전외측 대퇴피관(Anterolateral Thigh Flap)의 유용성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학교실
백정환* · 이원재 · 노태석 · 탁관철

구강 내 연부조직 재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피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전완부 유리피관이 여러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. 하지만, 전완부 유리피관의 경우 공여부의 미용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. 같은 근막피부관인 전외측 대퇴피관의 경우 전완부 피관에 비해서 비교적 넓은 결손부위를 재건할 수 있고 공여부의 미용상, 기능상의 문제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

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보다 적은 공여부 반흔을 남기면서 크고 안전한 피관을 이전할 수 있는 전외측 대퇴피관은 매우 좋은 대체 피관이 될 수 있다. 일반적으로 전외측 대퇴피관은 전완부 유리피관에 비해 두껍기 때문에 구강 내 연부조직 재건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구강 내 결손의 재건에 있어서는 주로 혀의 재건에 사용되어 왔다. 하지만, 최근 이 피관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피관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음이 밝혀졌고 이를 이용, 편도주(tonsillar fossa) 및 인두 부위의 재건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복

합된 구조물의 광범위한 결손이 있을 경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.

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성형외과에서는 지난 2년간 총 15명의 환자에서 혀와 tonsil area에 발생한 악성 종양을 제거한 후 발생한 결손의 재건을 위해 전외측 대퇴피관을 이용하였다. 술전 검사에서 Allen test 양성인 환자와 결손 부위가 큰 경우, 젊은 환자로서 술 후 전완부나 신체 노출부위의 공여부 반흔이 문제시 될 환자에서는 이 전외측 대퇴피관을 이용하였다.

여기에 증례들을 소개하고 추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전외측대퇴 피관은 광범위한 결손의 피복이 필요한 경우, 인체의 비노출부의 공여부로부터 인체 주 혈관의 희생을 피하면서도 비교적 미세문합술에 용이한 긴 피관혈관경을 제공하는 안전하고도 유용한 피관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겠다.